

#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적인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제34호

Jeff Pippenger  
2026-01-27

## 제34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으려면, 광야가 있어야 한다. 2023년 7월, 유다 지파의 사자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 제시된 대로 그분 자신에 대한 계시의 봉인을 그때 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리는 음성이 울리기 시작하였다. 2020년 7월 18일 안식일에 있었던 실망으로 말미암아 계시록 11장의 사흘 반이 시작되었고, 그 사흘 반은 2023년 12월 30일 안식일에 끝났다. 그 안식일에 2020년 7월 이후 처음으로, 퓨처 포 아메리카가 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였다.

그 시점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열려 왔다. 그 시작은 '진리'라는 단어에 대한 계시였고, 이어서 그 단어는 히브리 알파벳의 제1, 제13, 제22 문자로 규정된 세 단계의 틀을 표상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 문자들이 결합될 때 '진리'라는 단어가 된다. '진리'라는 단어의 틀에 나타난 그 세 단계는 새로운 맥락 속에 배치된 오래된 진리였다.

수년간 우리는 틀, 성소, 지성소의 세 단계가, 성령께서 틀에서 죄를 책망하시고 성소에서 의를 드러내시며 지성소에서 심판하시는 세 가지 역사와 평행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 주어 왔다. 우리는 이 세 단계가 하나님의 말씀 전반에 걸쳐 나타남을 확인해 왔으나, 2023년에 이르러 그 모든 이해는 '진리'라는 틀 안에서 확대되었다. 오래된 진리를 취하여 새로운 진리의 틀 속에 배치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의 봉인을 점진적으로 풀어 가시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2023년에 끝난 '광야'는 예언의 봉인이 풀리는 때인 예언적 '끝의 때'를 상징한다. 그 예언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구주의 시대에 유대인들은 전통과 꾸며낸 이야기라는 잡동사니로 진리의 귀중한 보석들을 그렇게나 덮어 버려,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 불가능할 지경이 되었다. 구주께서는 미신과 오랫동안 간직해 온 오류의 잡동사니를 치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보석들을 진리의 체계 속에 제자리에 놓기 위해 오셨다. 그분이 그때 유대인들에게 하셨듯이 지금 우리에게 오신다면, 구주께서는 무엇을 하시겠는가? 그분은 전통과 의식의 잡동사니를 치워 버리는 비슷한 일을 하셔야 할 것이다. 그분이 이 일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크게 동요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본래의 진리를 잃어버렸지만,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시 드러내셨다.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미신과 오류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명이 맡겨졌는가! 리뷰 앤드 헤럴드, 1889년 6월 4일.

이는 "하나님의 귀중한 진리들을 미신과 오류에서 해방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보석들을 진리의 틀 속에 배치하는 것"이다. 2023년에 주께서는 "truth"라는 단어가 표상하는 구조 안에서 진리의 틀을 제시하셨다. 그 틀은 "of God"의 "original" 진리들을 드러낸다.

오류의 먼지와 잡동사니가 진리의 귀한 보석들을 파묻었으나, 주님의 일꾼들은 이 보물들을 파내어 드러낼 수 있으므로, 수천 명이 그것들을 기쁨과 경외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겸손한 일꾼 곁에 서서 은혜와 신적 조명을 베풀 것이며, 수천 명이 다윗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이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오랜 세월 보이지도 주목받지도 못했던 진리들이, 밝게 비추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기록에서 눈부시게 드러날 것이다. 진리를 듣고도 거절하고 짓밟아 온 교회들은 대체로 더욱 악을 행하겠으나, '지혜로운 자들', 곧 정직한 자들은 깨달을 것이다. 그 책은 열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에 이른다.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하늘로부터 외치는 천사의 큰 외침에, 오랫동안 세상을 사로잡아 온 무감각에서 수천 명이 깨어나 진리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보게 될 것이다. 리뷰 앤드 헤럴드, 1885년 12월 15일.

"주님의 일꾼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과 "정직한" 자들은 "이해할" 것이며, "보물들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면 "수천 명이 그것들을 기쁨과 경외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불행히도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경우, "셋째 천사의 큰 외침", 곧 "일요일 법령"의 때에 그들이 그들의 혼미에서 깨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재림주의가 깨어나기에는 너무도 늦기 때문이다. "열한시의 일꾼들"은 곧 임할 "일요일 법령" 때, "셋째 천사에게 합류하는 천사의 큰 외침" 가운데서 그들의 "혼미"에서 깨어난다. 2024년부터, "오랫동안 보지도 못하고 유의하지도 않았던 진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밝게 비춰진 페이지들로부터" 타올라 나오고 있다.

이사야 22장 22절에서는 엘리야김에게 하나의 열쇠가 주어지고,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에게 그 나라의 열쇠들이 주어진다.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사야 22:22.

그 "열쇠"는 빌라델비아에 주어지는데, 성경에서 열고 닫는 열쇠가 언급되는 다른 곳은 오직 그곳뿐이기 때문이다.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이, 참되신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그것을 닫을 사람이 없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3:7, 8.

사소한 점을 가지고 따지던 유대인들과의 마지막 대면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이 대답할 수 없었던 질문을 던지셨다.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아들이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영으로 그를 주라 부르며 이르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른다면, 어찌하여 그가 다윗의 아들이겠느냐?

아무도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고, 그날 이후로는 아무도 감히 그에게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다. 마태복음 22:41-46.

유대인들은 다윗과 그리스도의 예언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는 그들에게 "줄 위에 줄"이라는 성경적 언어를 이해할 예언적 해석의 열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눈멀음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함에 근거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며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마무리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모세를 이해하였다면 그리스도를 이해했을 것이라고 지적하셨으나, 그들은 자신들이 받들고 옹호한다고 주장하던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다윗의 집'의 '열쇠'는 필라델피아 교회였던 밀러파에게 주어졌다. 그 '열쇠'는 열리고 닫히는 문들로 표상된 개혁운동이었다. 1798년부터 1863년에 이르기까지 밀러파 운동은 운동에서 교회로 나아가면서 필라델피아의 경험에서 라오디게아의 경험으로 이행하였다. 1844년 4월 19일에 한 문이 열리고 한 문이 닫혔듯이, 1844년 10월 22일에도 한 문이 열리고 한 문이 닫혔으며, 1863년에도 한 문이 열리고 한 문이 닫혔다.

엘리아김은 하나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으나, 베드로에게는 여러 개의 열쇠가 주어졌다. 단수형의 그 열쇠는 1844년의 닫힌 문이었다.

성소의 주제는 1844년 실망의 신비를 푸는 열쇠였다. 그것은 서로 연결되고 조화된 완전한 진리의 체계를 펼쳐 보였고, 하나님의 손이 위대한 재림 운동을 인도하셨음을 드러내었으며, 그분의 백성의 위치와 사역을 밝힘으로써 현재의 의무를 드러냈다. 대쟁투, 423.

성소 교리는 1844년의 닫힌 문을 열어 준 열쇠였으나, 베드로에게도 천국의 열쇠들이 주어졌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드러낸 이는 혈과 살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또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음부의 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네게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마태복음 16:17-19.

줄 위에 줄을 더하듯, 베드로로 대표되는 마지막 언약의 신부인 빌라델비아에게는 다윗의 집의 열쇠와 더불어 천국의 열쇠들이 주어진다. 다윗의 집의 열쇠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다루신 주제이다.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아들이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영으로 그를 주라 부르며 이르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른다면, 어찌하여 그가 다윗의 아들이겠느냐?

아무도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고, 그날 이후로는 아무도 감히 그에게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다. 마태복음 22:41-46.

베드로는 오순절 제삼시에 다락방에서 바로 '다윗과 그의 주'라는 주제에서 시작하였다. 바리새인들과 그리스도 사이의 대화의 문을 닫게 했던 그 주제가, 오순절에 베드로가 다락방의 문을 여는 데 사용한 열쇠였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간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가 친히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겠는가?"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각 사람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는 이 약속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 데 있는 모든 사람들,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임이라. 또 여러 다른 말로 증언하고 권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의 말을 기꺼이 받은 자들은 세례를 받았고 그 날에 약 삼천 명이 그들에게 더하여지더라. 사도행전 2:34-41.

베드로는 매거나 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그렇게 행할 때, 하늘은 베드로의 행위에 동의하였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의 봉인을 풀기 위하여 신성과 인성이 협력하여 일하는 것을 대표한다. 그 진리들의 봉인이 풀릴 때, 그것들은 지식으로 표상된다.

그리스도의 시대에 지식의 열쇠는, 구약 성경에 담긴 지혜의 보물창고를 열기 위해 그 열쇠를 쥐고 있어야 할 이들에 의해 빼앗겨 버렸다. 랍비들과 교사들은 가난한 자들과 고통받는 자들에게 천국의 문을 사실상 닫아 버리고, 그들을 멸망하도록 방치했다. 그분의 가르침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까 하여 한 번에 많은 것을 제시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모든 요점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셨다. 또한 생각을 심어 주려는 자신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예언 속에 있는 오래되고 익숙한 진리들을 되풀이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옛 진리의 보석들을 처음 주신 분이셨다. 원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진리들은 제자리를 잃었다. 본래의 자리에서 떼어져 오류의 틀 속에 놓였던 것이다. 그리스도의 일은 그 귀한 보석들을 진리의 틀 안에 다시 바로잡아 제자리에 세우는 것이었다. 세상을 축복하시려고 친히 주셨던 진리의 원칙들은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묻혀, 겉으로는 멸절된 듯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들을 오류의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 내시고, 새롭고 생명력 있는 힘을 부여하시어, 귀한 보석처럼 빛나며 영원히 굳게 서 있도록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오래된 진리들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남에게서 가장 작은 부분 하나라도 빌릴 필요 없이 사용하실 수 있었다. 이는 그것들이 모두 그분에게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각 세대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것들을 심어 놓으셨고, 우리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죽어 버린 진리들을 재정리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후대의 유익을 위해 그것들을 더욱 힘 있게 하셨다. 진리들을 폐물 더미에서 건져 내어 본래의 신선함과 능력 이상으로 다시 세상에 주실 권능을 가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원고 발표집 13권, 240, 241쪽.

베드로에게 주어진 열쇠는 매는 것과 푸는 것이었다. 베드로는 마지막 그리스도인 신부, 곧 십사만 사천을 대표한다. 십사만 사천의 증언 속에 표상된 베드로의 매는 메시지는 인침이다. 십사만 사천의 증언 속에 표상된 베드로의 푸는 메시지는 셋째 화의 이슬람이다.

그때 나는 셋째 천사를 보았다. 나와 동행하던 천사가 말했다. "그의 일은 두렵고, 그의 사명은 엄숙하다. 그는 가라지 가운데서 알곡을 가려내어, 하늘 공간을 위해 알곡을 인치거나 묶을 천사이다. 이러한 일들은 온 마음과 온 주의를 사로잡아야 한다." 초기 저술, 119.

단으로 묶인 밀은 오순절의 첫 열매인 밀 제물로 표상되며, 그것이 요제로 바쳐질 때 십사만 사천의 기호를 들어 올리는 것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인침은 베드로의 내적 메시지이며, 그것은 9/11 이후 점진적으로 풀려나는 셋째 화의 이슬람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1-3.

하나님의 백성이 결박되는 동안 제지되고 있던 그 네 바람은 9/11 당시 풀려났고, 이어 조지 부시(아들)에 의해 다시 제지되었다. 베드로의 외적 메시지는 이슬람이며, 이슬람의 풀림과 제지는 인침의 기간을 관통하는 외적 메시지이다. 베드로의 인성은 신성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그에게 주어진 열쇠들이 하늘과 땅 사이의 일치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기도를 소홀히 하는 자들을 악한 자의 흑암이 에워싼다. 원수의 속삭이는 유혹이 그들을 죄로 꺾어들인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제정하시어 그들에게 주신 특권을 그들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가 믿음의 손에 들린 열쇠로서 전능하심의 무한한 자원이 간직된 하늘의 공간을 여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어찌 기도하기를 주저하겠는가? 쉬지 않는 기도와 부지런한 경성이 없이는 우리는 헤이해지고 바른 길에서 벗어날 위험에 처한다. 대적은 우리가 간절한 간구와 믿음으로 유혹에 저항할 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속죄소로 나아가는 길을 끊임없이 가로막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특정한 조건들이 있다. 그 가운데 첫째 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도움이 필요함을 느끼는 것이다.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붓고, 마른 땅 위에 홍수를 부어 주리라.' 이사야 44:3. 의에 주리고 목마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채워질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마음은 성령의 감화에 열려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우리의 큰 필요 자체가 곧 논거가 되어 우리 편에서 가장 설득력 있게 탄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도록 우리는 주를 찾아 구하여야 한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은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마태복음 7:7; 로마서 8:32.

우리가 마음에 죄악을 품고, 알고 있는 죄를 붙들고 있다면,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의 기도는 언제나 열납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잘못이 바로잡힐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실 것을 믿을 수 있다. 우리 자신의 공로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얻도록 하지는 못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이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은 그의 피이다. 그러나 우리는 열납의 조건에 부합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

응답받는 기도의 또 다른 요소는 믿음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또한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히브리서 11:6.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24.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가? 정로의 계단, 94-96.

하나님의 기별을 맡아 전하며 하나님의 종임을 공언하고도 스스로 높아져 있는 젊은 남자들을 위한 교훈이 여기 있다. 그들은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의 경험 속에서 주목할 만한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으면서도, 자신들에게 비천해 보이는 의무를 수행하는 일은 자기들의 격에 맞지 않다고 여긴다. 그들은 종의 일을 하게 될까 두려워하여, 필요한 봉사를 하기 위하여 사역자의 존엄에서 내려오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든 자들은 엘리야의 본에서 배워야 한다. 그의 말로 하늘의 보고, 곧 이슬과 비를 잠가 삼 년 동안 땅에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그의 말만이 하늘을 열어 비를 내리게 하는 열쇠였으며, 그가 왕과 이스라엘의 수천 명 앞에서 단순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존귀히 여김을 받았고, 그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번쩍 내려 희생의 제단 위에 불을 붙였다. 그의 손이 바알의 제사장 팔백오십 명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였고, 그럼에도 그날의 탈진케 하는 수고와 가장 현저한 승리 후에, 하늘에서 구름과 비와 불을 불러오던 그는 비천한 자의 봉사를 기꺼이 수행하여, 그가 그의 죄와 범죄 때문에 면전에서 꾸짖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바로 그 군주를 섬기기 위해 어둠과 바람과 비 속에서 아합의 병거 앞서 달렸다. 왕은 성문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야는 걸옷으로 몸을 두르고 맨땅에 누웠다. 증언, 제3권, 287쪽.